언어 영역

정답

1	⑤	2	④	3	②	4	④	5	⑤
6	⑤	7	②	8	④	9	②	10	①
11	④	12	④	13	⑤	14	③	15	①
16	④	17	①	18	③	19	④	20	⑤
21	②	22	④	23	①	24	②	25	②
26	⑤	27	①	28	③	29	⑤	30	④
31	④	32	④	33	①	34	②	35	②
36	②	37	③	38	③	39	②	40	⑤
41	③	42	⑤	43	④	44	⑤	45	①
46	⑤	47	②	48	③	49	①	50	③

듣기대본 및 해설

1. [출제의도] 이야기에 담긴 교훈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제 이야기 한 편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대학에서 시간관리 전문가가 경영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공하는 인생'이란 제목의 특강을 할 때였습니다. 강사는 학생들에게 하나의 실험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 여기에 항아리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먹만한 돌로 이 항아리를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 항아리 속이 돌로 가득 찼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항아리가 가득 찼습니까?"

"예."

학생들은 대답했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고 되묻더니 강사는 조그만 자갈을 꺼내 항아리에 넣고, 자갈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항아리를 흔들었습니다. 주먹만한 돌 사이에 자갈이 가득 차자,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떨까요?"

"글쎄요……."

눈이 동그래진 학생들이 애매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시 모래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다시 모래를 항아리에 부었습니다.

"이제 이 항아리가 가득 찼을까요?"

"아니요!"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알았다는 듯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한 학생이 손을 들고서 대답했습니다.

"매우 바빠서 일정이 꽉 차 있더라도, 노력한다면 새로운 일정을 그 사이에 추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만약 당신이 큰 돌을 먼저 넣지 않는다면, 영원히 큰 돌을 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강사는 인생을 항아리에 비유하고 있다. 인생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중요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그 후 세부 목표와 세부 실천 사항을 정해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음을 비유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라디오 방송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의 작품인 '오감도 제4호-환자의 용태에 관한 문제'라는 시에 담긴 의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력 검사판을 연상시키는 이 시는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기묘하게 배치하여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시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요즘은 진료 기록을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지만, 손으로 휘갈겨 쓴 진료 기록은 일반인에게 암호같이 느껴집니다. 이 시는 환자의 용태에 대한 진단이라 볼 수 있는데요. 숫자가 빼곡하게 차 있는 이 진료 기록을 해석하기는 정말 어려운 일이지요. 그렇다면 이 시는 바로 암호처럼 난해한 진료 기록을 패러디한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이 시에 적힌 숫자는 거울에 비친 상처럼 거꾸로 적혀 있습니다. 이 거꾸로 된 숫자는 거울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환자의 용태를 표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시는 시각적으로도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숫자판의 왼쪽 끝에는 0, 오른쪽 끝에는 1을 세로로 나열하여, 진단 결과 '0:1'과 어울리게 함으로써 시각적 운율의 효과도 얻고 있습니다. 형태에서도 대칭의 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시는 11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대각선에 소수점을 배치하여 서로 대칭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의 마지막에 있는 '진단 0:1'에서, 0:1을 분수로 나타내면 0/1, 즉 0이 됩니다. 이 시는 첫 행부터 마지막 행까지 0.1을 10번 곱한 것에서 그치고 있지만, 계속 0.1을 곱한다면 0에 가까운 수가 되고, 0은 소멸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진단은 죽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대각선에 소수점을 배치한 것은 서로 대칭을 이루어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얻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입 호흡'에 대한 강연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여러분은 평소에 집중력이 떨어진다고 느끼나요? 혹시 입을 벌리고 자고 있지 않나요? 아래턱이 나오지는 않았나요?

이런 증상은 입 호흡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입 호흡의 가장 큰 원인은 알레르기성 비염이고, 다음으로는 축농증, 감기 등의 순으로 코에 문제가 생기면 입 호흡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코로 호흡하지 못하고 입으로 호흡을 하는 것은 불편함을 넘어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의 얼굴 변형, 지적 발달 지연, 성장 장애 등 많은 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입 호흡이 습관화되면 식사를 할 때조차 입을 벌리고 호흡해야 하는데, 이때 입은 음식을 씹으면서 동시에 숨도 쉬어야 하는 이중의 작업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정상적인 호흡이 되지 않아 구강의 압력이 치아를 밖으로 밀어내게 되고, 장기적으로 삐드렁니나 주걱턱의 원인이 됩니다. 입 호흡을 하면 얼굴모양도 바뀝니다. 입 호흡을 하다보면 볼과 코 윗부분의 근육을 거의 사용하지 않게 되고, 입을 항상 열어놓고 있어 아래턱 근육도 제대로 발달하지 못해 전체적으로 얼굴이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뇌에 산소공급이 줄어들고 뇌세포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주의가 산만해지기도 하며, 잠을 잘 때 숙면을 취하지 못해 숙면 시 분비되는 성장 호르몬이 부족해져 키가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혹시 자신이 입 호흡을 하는지 잘 살펴야 합니다. 입이 항상 반쯤 열려 있는지, 입술이 늘 건조하고 입안이 말라 있는지, 잘 때 입을 벌리고 자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입 호흡이 의심되면 빨리 치료하고 유해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멋지고 아름다운 얼굴을 간직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강연의 내용은 입 호흡의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것이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할 때, 키가 자라지 않는 이유는 입 호흡으로 인해 숙면을 취하지 못해 성장호르몬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 [출제의도] 대담자의 말하기 방식을 평가하는 문제이다.

이번에는 '청소년 기부문화'에 대한 대담을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4번과 5번의 두 물음에 답하십시오.

사회자(여): 안녕하십니까? 얼마 전 한 연예인이 오랫동안 남모르게 큰돈을 기부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시민들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는데요. 기부가 좋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선뜻 나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오늘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에 대해 전문가 두 분을 모시고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박 교수님! 기부에 대한 청소년들의 인식은 어떤가요?

박 교수(남): 많은 청소년들이 기부를 거창하고 대단한 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기부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돈이나 물품, 전문지식, 재능, 기술, 시간 등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는 행위가 기부라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특별한 능력이 아니어도 되고, 액수가 큰돈이어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사실을 덧붙이고 싶네요. 중요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마음이니까요.

사회자(여): 네, 박 교수님. 그럼 청소년들이 기부를 어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박 교수(남):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청소년들이 경제적 기부를 하는 데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몰두하다 보니 시간도 부족하구요. 그러나 그렇다고 기부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에요. 물건을 살 때마다 누적되는 포인트, 100원짜리 동전 등도 기부할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봉사활동으로 보육원이나 양로원을 찾아 어려운 이웃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기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자(여):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온라인 기부 포털사이트인 '나눔터'를 운영하고 계신 김 대표께서 '나눔터'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시죠.

김 대표(여): 인터넷에서 미니 홈피나 블로그, 메일 등을 이용하다 보면 누적되는 사이버 머니들이 있지요. 저희는 그 사이버 머니를 이용하여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사회자(여): 사이버 머니는 인터넷에서 현금과 같은 역할을 하지만 그 용도가 마땅치 않은데, 그렇게 하면 사이버 머니를 좋은 곳에 쓸 수 있겠군요. 박 교수님! 사이버 머니를 이용해서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나요?

박 교수(남): 홍보가 덜 된 탓에 아직까지는 그리 많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능을 활용하여 기부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조금씩 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진을 잘 찍는 사람, 마술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어려운 이웃들과 자신의 능력을 나누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여): 김 대표님! 저도 누적된 사이버 머니가 꽤 되는데요. 어떻게 기부를 하면 되나요?

김 대표(여): 저희 '나눔터' 홈페이지에 기부 단체들이 다양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단체들의 활동을 살펴보시고 후원할 곳을 정하셔서 사이버 머니 기부하기를 클릭한 후, 기부할 사이버 머니 금액을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사회자(여): 네.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기부 문화를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들도 기부라는 아름다운 동행에 한번 참여해 보면 어떨까요?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박 교수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한발 더 나아가 기부에 대한 자신의 견해, 기부의 다양한 방법, 재능을 기부하는 사람들의 추세 등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추가하여 말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5.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여 적용하는 문제이다.

박 교수는 전문지식, 재능, 기술, 시간 등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을 위해 기꺼이 나누는 행위 모두 기부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나 ⑤의 사회복지사는 일정한 대가를 받는 직업이므로, 사회복지사의 행위를 기부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쓰기 ****

6. [출제의도] 도형을 활용하여 주제에 맞게 연상 내용을 추출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주어진 동그라미를 활용하여 지구를 연상해 낼 수는 있지만 지구의 공전·자전에서 겸손한 태도를 이끌어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7. [출제의도] 자료 활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자료를 근거로 할 때, 건강증진 업무를 수요자 입장에서 연속적·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가 없다고 하였으므로 부처별로 업무를 분산시킨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8. [출제의도] 개요 수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지적 발달 단계에 맞는 교재 개발과 실생활의 활용 가능성은 동일한 범주의 내용이 아니므로, 통합하면 안 되고 독립된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9. [출제의도] 조건에 맞는 글쓰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②, ③, ④, ⑤이고,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은 ①, ②이다. ②의 '담금질'이 비유적 표현이며, '배움을 통한 발전'을 언급한 부분이 자기계발과 관련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10. [출제의도] 고쳐 쓰기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빨랫줄'은 줄었다 늘었다 하는 신축성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무줄'로 고쳐야 하며 글의 완결성을 고려하여 골목길이 길게 느껴졌을 때 앞에, 골목길이 짧게 느껴졌을 때에 대한 문장이 서술되어야 한다. '비록'은 '~르지라도'와 '아무리'는 '~아(어)도'와 함께 쓰이며 의미상으로도 '아무리'가 적절하기 때문에 고쳐야 한다. ㉡은 뒷 문장에 대한 결과이므로 위치를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은 주어를 '우리 집'으로 하는 경우 '좁은 골목길 끝에 있었다'라고 해야 적절하며, 서술어를 '끝이었다'로 할 경우 주어는 '우리 집의 위치는'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1. [출제의도] 조사 '에'와 '에서'의 사용법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은 접근의 의미를 지니지만 ㉢은 '있다'라는

서술어와 어울려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12. [출제의도] 주어진 단어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ㄹ의 '배부'는 시험을 본 학생이라는 대상자가 있는 것이고, ㅂ의 '배부'는 신청자라는 특정 대상이 있는 것이다. 반면, ㅁ의 '배포'는 불특정 다수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현대소설 ****

□ 출전 : 현기영, 「길」

13. [출제의도] 이야기 구성 방식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현재 어른이 된 '나'가 '박춘보'를 만나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액자식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야기[Ⅱ]는 어른 서술자인 '나'에 의해 정리된 것이며, 이를 통해 이야기[Ⅰ]의 어른 서술자인 '나'는 '박춘보'의 행동을 이해하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14. [출제의도] 작품 속 서술이 갖는 기능 및 역할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박춘보는 자신 때문에 죽거나 다친 사람들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다.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을 괴로워하고 있으므로, ㉢은 박춘보 자신의 내적 고뇌와 갈등을 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5. [출제의도] 인물의 심리를 파악해 다른 장르로 바꾸어 표현하는 문제이다.

[A]는 '나'가 아버지를 죽인 박춘보를 만나 그의 과거 이야기를 듣는 장면이다. 이 대목에서 '나'는 박춘보가 어디서, 왜 아버지를 죽였는지에 대한 궁금함으로 인해 긴장하고 초조해한다. 그래서 '나'는 박춘보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야 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6. [출제의도] 다른 작품과 연결하여 작품을 감상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단순한 고발을 넘어서서 '화해'의 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화해 정신은 토벌대로 끌려가서 '폭도'와 '양민'에 대한 무차별 사냥에 나설 수밖에 없도록 강제된 박춘보 개인에 대한 이해를 계기로 획득된다. '나'는 자신에게 가해자였던 박춘보가 어쩌면 역사의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 박춘보는 다만 살아남기 위해서 그 시대를 살아냈을 것이라고 이해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박춘보가 개인의 의지에 따라 자부심을 가지고 토벌대의 역할에 충실했던 것이라고 이해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사회 ****

□ 출전 : 정갑영, '승자의 저주'

17. [출제의도] 반응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허 생원에게 주식을 매도한 사람이 어떤 가격에 △△기업의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허 생원에게 매도했는지 알 수 없다. 손해를 보았을 수도 있지만 수익을 얻었을 수도 있다. 또한 승자의 저주는 거래를 통해 주식을 소유한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지 매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18. [출제의도] 구체적인 사례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승자의 저주는 경쟁을 통해 거래에 성공하였지만 오히려 큰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③의 경우, 경쟁이 있기는 하지만 거래 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19. [출제의도] 문맥을 바탕으로 구절의 의미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독점가격이 비효율적인 이유는 거래 당사자인 두 사람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④의 경우는 소비자가 이전 상품보다 비싼 가격에 상품을 구매해야 하므로 손해가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인문 ****

□ 출전 : 노안영, '상담심리학의 이론과 실제'

20. [출제의도] 글의 핵심 내용과 의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교류분석의 원리와 단계를 설명하는 글이다. 또한 이 설명을 통해 의사소통에서 발생하는 역기능적 대인 관계 양상을 해소하는 것이 교류분석의 의의라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류분석은 역기능적 대인관계를 개선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21. [출제의도] 두 개념을 비교하여 관계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 ⓑ는 교류분석의 두 가지 단계로, ⓐ는 개인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는 단계이고 ⓑ는 구체적인 대화 상황에서의 타인에 대한 반응 방법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2.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①, ②, ③은 보낸 자극에 따라 원하는 반응을 보인 보완적 교류이다. ⑤의 ㉮는 '성인자아→부모자아', ㉯는 '성인자아→성인자아'의 교차적 교류이다. ④의 ㉮는 '성인자아→성인자아', ㉯는 '아동자아→부모자아'의 교차적 교류로 <보기>에서 제시한 대화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23. [출제의도] 단어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의 문맥적 의미는 '서로 같지 않다'이다. ①의 '다르다'도 지방마다 생활과 풍습이 '서로 같지 않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 언어 ****

□ 출전 : 김광해 외, '국어지식탐구'

2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확인하고 내용을 추리하는 문제이다.

은유는 경험을 드러내고 개념화하는 인지 책략이다. 표현 불가능한 대상은 은유를 통해 언어로 나타낼 수 있지만, 인식 불가능한 세계는 인식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기에 표현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5.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는 문제이다.

'사랑에 빠지다'는 '물에 빠지다'라는 구체적 경험과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표현한 은유이다. 사랑을 하게 되면 마치 물에 빠져 헤어 나오지 못하는 상황과 같아지게 되며, 결국 이 상황이 지속되면 결과적으로 물에 온몸이 잠기는 것처럼 사랑에 온몸이 잠기게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26. [출제의도]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다른 사례를 분석하는 문제이다.

㉰와 '내 마음은 호수다'는 추상적인 경험을 구체적인 존재를 통해 표현한 존재론적 은유이다. ㉱는 목표 영역인 추상적인 '자존심'을 '그릇'이라는 근원 영역을 통해 인식함으로써 구체적인 경험에서 나온 '그릇에 금이 가다'의 상황과 연결하여 표현하였다. ㉲는 존재론적 은유, ㉳는 '상승세/내림세'로 쓰이는 '위-아래'와 관련된 일상경험에 기초한 방향적 은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희곡 ****

□ 출전 : 오태석, 「태(胎)」

27. [출제의도] 작품에 드러난 현대극의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죽은 사육신이 다시 등장하여, 산 자와 죽은 자가 같은 시·공간에 등장하므로 논리적인 시·공간을 해체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28. [출제의도] 사건 전개 과정을 토대로 작품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세조는 혈육인 단종의 죽음을 계기로 생명의 의미에 대해 고뇌하게 되면서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사육신은 이런 세조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이지 왕권강화를 돕고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29. [출제의도] 극적 형상화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결말에서 세조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하지만, 여종이 죽은 자식을 애타게 찾는 상황이므로 밝고 경쾌한 음악은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30. [출제의도] 작품 속 문장의 문맥적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문맥적 의미를 참고할 때 ㉣에는 종과 여종이 어떠한 어긴 것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억압 속에서도 끈질기게 이어진 생명에 대한 세조의 탄복이 드러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예술 ****

□ 출전 : 김조복, '동양화의 이해'

31. [출제의도] 구체적 사례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나)의 그림은 연꽃을 사실적으로 그리지 않았으나 연꽃의 특징을 조작 구조를 통해 파악하여 인상에 남는 부분을 생동감 있게 그리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2. [출제의도] 유사한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이다.

형상기억은 시각적 인상을 통해 대상을 떠올리는 것이다. '峰'의 부수인 '山'을 통해 산봉우리를 떠올릴 수 있으므로 '峰(봉우리 봉)'을 쉽게 암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33. [출제의도] 관점에 따른 비판적 사고의 타당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는 동양화의 기법에 묵사법 이외에 사생법이 있음과 동양화는 이 두 기법의 병용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글은 형상기억을 통해 그리는 방법인 묵사법에 대한 내용만 있어 동양화의 다른 기법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34. [출제의도] 어휘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깃들어 있다'는 '어떤 것을 받아들임'의 의미인 '수용'이 아닌, '풍부한 내용이나 깊은 뜻이 들어 있음'인 '함축'이나 '어떤 사물이나 현상 가운데 함께 들어 있거나 함께 넣음'인 '포함'으로 바꾸는 것이 적절하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 과학 ****

□ 출전 : 한국 기상학회, '대기과학개론'

35. [출제의도] 내용 전개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은 역전층, 공장의 연기 형태와 난류로 인한 공동, 굴뚝의 높이 등의 사례를 통해 오염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원리와 과정을 분석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6. [출제의도] 다른 상황에 적용하여 추론하는 문제이다.

열섬 효과가 발생하면 대기의 대류 운동이 방해를 받으면서 공기가 정체된다. 열섬 효과는 도심에서 발생하는 열로 인해 나타나는 것이지 태양 복사열에 의한 것이 아니고, 해가 뜬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①,②). 도심 지표면에서 발생한 열은 상공에 영향을 미쳐 주변 지역보다 도심을 뜨겁게 만들고 공기의 흐름을 정체시켜 기층을 안정한 상태로 만든다(③). 또한 열섬 효과가 나타나면 지표의 온도가 높아지므로 역전층은 나타나지 않는다(④). 기온 역전 현상은 역전층에 의해, 열섬 효과는 도심의 열에 의해 발생하는데 그 결과 연직 운동 즉 대류 운동을 방해하여 오염 물질을 정체시키는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37. [출제의도] 결론 추리 과정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공동은 바람이 지형이나 건물에 부딪쳐 분리되면서 그 뒷부분에 생기는 것으로 주된 흐름과의 혼합이 일어나지 않아 오염 물질의 정체를 가져온다. 즉, 공동은 지형이나 건물이 원인이 되어 일어나는 것이므로 스모그로 인해 지표면에 햇빛이 도달하지 못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 운문복합 ****

□ 출전 : (가) 김기택, 「멸치」
(나) 백석, 「선우사(膳友辭)」
-함주시초(咸州詩抄)4」
(다) 정약용, 「타맥행(打麥行)」

38. [출제의도] 작품의 공통점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가)에서 화자는 밥상 위에 놓인 죽은 멸치를 바라보면서 반생명성을 비판하고, 생명성의 회복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나)에서 화자는 소박한 반찬들을 먹으면서 욕심 없이 순수하게 살아가는 삶의 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다)에서 화자는 보리타작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즐겁게 노동하는 삶이 바로 낙원임을 깨닫고 있다. 결국, 세 작품 모두 일상적인 소재를 활용하여 화자가 지향하는 삶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39. [출제의도]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비교하는 문제이다.

㉠과 ㉡은 모두 멸치의 생명성을 앗아가려는 의도를 지닌 부정적인 존재로 그려져 있는 반면, ㉢

과 ㉣은 부정적인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객관적인 자연물로 그려져 있다. ㉡과 ㉣은 둘 다 '햇볕'이지만, ㉡은 멸치의 표피를 말리고 있다는 점에서 촉각적 심상의 측면에 주목하게 되고, ㉣은 농부의 검은 어깨를 번쩍이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적 심상의 측면에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둘 다 특정 계절의 이미지를 드러낸다거나 정서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0. [출제의도] 작품 속 공간을 바탕으로 감상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의 멸치는 '바닷속'에서 '길거리, 건어물집'을 거쳐 '접시'에 담기게 된다. 그러나 (나)의 '가재미', '흰밥', '나'는 각각 '모래톱', '한벌판', '산골'에서 자라나 현재 함께 저녁을 맞이하고 있을 뿐, '세상'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세상'은 그들이 추구하는 삶과는 거리가 먼, '밖에 나도 좋을 것 같은 공간'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1. [출제의도] 유사한 발상이 드러난 표현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A]에서 화자는 튀겨진 멸치의 몸통에 새겨진 물결 무늬를 보면서, 시간과 공간의 흐름을 역으로 거슬러 멸치가 다시 바닷속에 이르는 독특한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현재 부정적 공간에 놓여있게 된 대상의 신체 일부에서 과거에 그 대상이 존재했던 공간의 긍정적 이미지를 역으로 떠올리고 있는 것이다. 갇혀 있는 사자의 눈에서 야생의 초원을 떠올리는 것 역시 이와 유사한 발상이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2. [출제의도] 다른 장르로 바꾸어 쓸 때의 고려 사항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나)의 화자에게서는 가난과 외로움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태도를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일제에 의해 고통 받고 쓸쓸하게 친구들을 그리워하는 <보기>의 '나'에게서는 당당한 태도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3. [출제의도] 작품의 표현상 특징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다)에는 보리타작을 하는 현장이 생동감 있게 묘사되어 있으며 특히 '옹헤야'와 같이 청각적인 심상에서 노동의 즐거움이 잘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색채의 대비를 통해 화자의 심리를 압축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색채가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은 보리타작의 흥겨움과 풍요로움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④번이다.

**** 기술 ****

□ 출전 : 이민석, '자연광과 건축환경'

44. [출제의도] 세부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는 인공 조명의 장단점과 주광과의 비교만 있고 인공 조명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없다. ①, ③, ④는 1·2문단에, ②는 3·4문단에 나타나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45. [출제의도] 글을 바탕으로 그림 자료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보기>의 왼쪽 창은 창 쪽이 가장 밝고 창에서 멀어질수록 어두워지며 <보기>의 오른쪽 창은 창 바로 아래쪽의 주광률은 낮지만 창에서 조금 멀어지면 주광률이 다소 상승한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46. [출제의도] 핵심 정보를 파악하는 문제이다.

실내 공간은 신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인공 조명보다 인간에게 익숙한 주광에 의해 밝기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지만 주광은 야간이나 기후 변화 등에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 점이 용이한 인공 조명을 통해 이 부분을 보완한다. 따라서 정답은 ⑤번이다.

**** 고전소설 ****

□ 출전 : 작자미상, 「서대주전(鼠大州傳)」

47. [출제의도]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이 글에서 원님은 서대주의 말만 듣고 잘못된 판결을 내렸으며, 서대주는 원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 낼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서대주가 도둑질을 한 이유는 글에서 언급되지 않았고, 타남주는 도둑맞은 후 울부짖고 있어 의연한 태도를 보인다고 볼 수 없다. 타남주는 서대주가 절취 사건의 범인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 후 고소장을 올린 것이다. 따라서 정답은 ②번이다.

48. [출제의도] 다른 매체로의 변용의 적절성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타남주 무리는 회의를 한 후 작은 다람쥐를 보내서 서대주의 절취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고소장을 썼기 때문에 회의 장면에서는 타남주가 고소장을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

49. [출제의도] 인물의 말하기 방식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서대주는 자신이 한 도둑질을 숨기기 위해 타남주가 평소 악행을 일삼았다는 것과 타남주가 원한을 품고 자신을 고소했을 것이라는 근거를 들어 타남주를 모함하고 있다. 따라서 정답은 ①번이다.

50. [출제의도] 작가의 의도를 추리하는 문제이다.

후일담은 서대주를 부정적으로, 타남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덕행의 중요성과 함께 권선징악, 인과응보의 교훈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송사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당대 재판 제도에 대해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소설의 결말과 다른 후일담은 사건을 잘못 평가한 당대 사회의 문제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서대주의 도적질에 대한 평가가 시대에 따라 달라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정답은 ③번이다.